

피난 생활 보고 · 避難生活報告 24

인내로써 승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피난을 시작했을 당시는 이렇게 피난 생활이 오래도록 계속되리라고는 생각조차 못 했기 때문입니다. 모두 함께 살아남고자하는 탈출 극에서 겨우 헤어 나와 차차 안정을 되찾으면서 엄격한 현실과 마주하는 이러한 비밀상적인 생활 속에서 어떻게든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려는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여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 끝날 것 같은 기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될 수 있는 한 이 피난 여행이 보름 전에 끝나길 바랐습니다.

많은 방문자들은 저에게 쉬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상당히 지쳐 보였는지요. 아무쪼록 기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그 분들 말씀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혼자 잠깐이라도 눈붙일 새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손님이 오십니다. 평소에도 손님은 자주 오는 편입니다만 매일 누군가가 찾아오는 이러한 비밀상적인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는지요. 우리들이 그 때까지 견딜 수 있을지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희망이 됩니다. 그 말씀에는 시작과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로도 끝을 향해서 가까워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만 하나님이지으신 세계에는 모두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시시각각 여행의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여행이 시작된 지도 벌써 2 개월 반이 지났습니다. 이제 피난 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그날 그날의 목숨을 부지하는 단계에서 지금은 성도님들의 개인별 요구에 대응하는 치밀한 서포트가 필요합니다. 길어지는 피난 생활로 인한 정신적인 부담과 개인이나 각가정의 요구에 따르는 생활환경의 정비입니다. 아무래도 단거리에서 중거리 혹은 장거리로 양상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마음의 기어체인지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모세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의 탈출을 끝냈을 때 또다시 40 년에 걸친 긴 여로에 대비하여 강한 기어체인지를 하도록 요구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8 장) 탈출할 때의 태세로는 그 후 계속되는 멀고도 험한 여로를 완주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설마 40 년까지 계속되지는 않겠지만 아무래도 우리의 여행이 그렇게 짧게는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애굽 탈출 후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도 의외로 좋았다'라든가, '부추나 마늘이 먹고 싶다'는 등의 불만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에 직면한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여행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서 생긴 일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에게도 강한 인내력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10 장 36 절)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함이라'** (야고보서 1 장 4 절)에서 말씀하시는 인내력과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부디 기도해 주십시오.

요즘 크래쉬재팬(CRASH JAPAN)이라는 단체가 각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고마운 일입니다. 이 크래쉬(CRASH)는 구제, 협력, 지원, 희망의 머리 문자로 명명되었다고 합니다. 이번의 일련의 사건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확실히 돌연한 이상변동에 의한 생활, 지역, 시간, 이 모든 것이 완전히 정지되버린 움적이지 않는 크래쉬(crash) 상태였습니다.

주님 부디 우리들 마음까지 위축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5 월 22 일(일) 후쿠오카—하네다편 기내에서